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799-805, Januar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799

JCCT 2023-1-98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 분석

Discourses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about Digital Education

허신혜*

HEO, SHIN-HYE*

요 약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었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역량은 더욱 강조되었고, 이는 교육 정책의 변화에 반영되었다. 많은 정책은 대중 담론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가 정점이던 2020년에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은 급증하였는데, 이는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학습과 학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담론은 디지털 역량의 문제를 주로 새로운 기술 습득의 문제와 관련지어 논했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다. 셋째, 디지털교육 담론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보다는 현재적인 관점의 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지 새로운 기술 습득이나 기능 함양이 디지털 리터러시의 전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교육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디지털교육,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교육정책, 담론, 신문기사

Abstract During the pandemic period, when non-face-to-face education became commonplace, the discourse on digital education increased rapidly. And this is reflected in education policy. This is because most policies are influenced by public discours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influential newspaper articles to analyze public discourse on digital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2020, when COVID-19 peaked, the discourse on digital education surged, which originated from the nee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earning and students in non-face-to-face education situations. Second, the discourse discussed the problem of digital competency mainly about the problem of acquiring new skills and dealt with it most importantly. Third, the discourse of digital education was dominated by discourse from the current perspectiv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erspective of what capabilities are needed for a future society. This is just because acquiring new technologies or cultivating functions cannot be seen as the whole of digital litera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the discussion on what digital competencies are needed in the future society and reflect them in education policies.

Key words : Digital Education, Digital Literacy, Digital Education Policy, Discourse, Newspaper

*정회원,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
접수일: 2022년 12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14일

Received: Dec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9, 2023
Accepted: January 14, 2023
*Corresponding Author: angelashh@hnu.kr
Dept. of History Education, Hannam Univ, Korea

Ⅰ. 서 론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격차가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의 정보 격차가 사회적 양극화를 점점 가중시키고 있음을 실제로 입증하였다[1]. 뿐만 아니라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0% 이상의 교사가 '학습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학교 현장의 심각한 실태가 보고된 바 있다[2]. 따라서 시대 흐름에 맞는 디지털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교육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산하의 빅데이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세대에 부합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계획 중이다.

2021년 상반기부터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해온 교육부는 기초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 이르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선택과목 등 관련 과목의 변화를 공시하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적용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진로 선택 과목에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등과 같은 새로운 과목을 도입할 예정이다[3].

이처럼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과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육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놓이면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4][5][6][7][8].

정책에서의 이같은 변화는 사회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대중들의 담론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 분석을 통해 세론(世論)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중 담론이 향후 디지털교육 정책 입안을 유도하는 방향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문기사는 대중들의 관심과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대중들의 담론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요즈음은 신문기사가 다양한 매체에 의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접근 가능한 자료가 되었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많은 시간 동안 대중매체에 노출되어 있다.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는 대중에게 보편타당한 지식으로 수용된다. 대중매체는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공공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전달하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9].

따라서 대중매체에 나타난 담론들을 검토하는 것은 대중들이 디지털교육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디지털교육에 관한 대중 담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검토하였다. 주요 일간지의 신문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제공되어 다양한 세대에게 널리 보급되어 있다. 또한 대중매체 중에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적·대중적 담론 형성에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대중 담론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분석 대상

분석 대상은 전국 일간지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중앙지로 분류한 11개 언론사의 신문기사이다. 기사를 추출한 언론사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나다순)이다.

자료 수집은 국내 언론사들의 기사를 수집 및 저장하여 최대의 기사DB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다[10]. '디지털교육'으로 검색하여 추출된 중앙지의 모든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검색된 기사 중에는 새로운 부처의 발령 등 단순한 인사와 관련된 기사들이 다수 있어서 '인사'를 결과 내 검색에서 제외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검색식은 '디지털교육NOT인사'이다.

분석 대상에서 지역신문이나 경제지를 제외한 것은 첫째, 상당수의 기사가 중앙지의 기사와 중복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지나 전문지보다는 중앙지가 규모의 면에서나, 영향력의 면에서, 대중들의 담론 반영이나 형성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4개년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은 COVID-19로 인해 원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성화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년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도 무방하겠으나, 2020년 펜데믹 상황에 따른 디지털교육 담론의 추이도 확인하기 위하여 2019년까지 포함하였다. 마찬가지로 2022년을 포함시킨 것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이하면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의 양적 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즉 분석 대상을 4개년으로 확장하고, 펜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전후의 시기를 포함하여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 담론을 검토하는 것은 보다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관점을 얻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분석 방법

디지털교육에 관한 대중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담론의 양적, 질적 변화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문기사의 양적인 변화는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심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에 따라 질적인 변화기 수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기사 내용에 대한 질적인 분석은 내용 검토를 통해 담론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양적 분석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활용하였다. 먼저, '디지털교육'으로 검색된 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여, 연도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형태소 분석과 개체명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주요 키워드의 분포나 빈도수를 확인하였는데, 이 또한 빅카인즈를 통해 이루어졌다. 디지털교육에 관한 관계도 분석이나 연관어 분석 또한 빅카인즈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질적 분석은 위의 분석 결과들을 고려하면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적인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는 디지털교육과 관련된 연관어나 빈도수 등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론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검토하기 위해서 Spradly가 제안한 주제 분석 방법을 추가로 활용하였다[11]. 즉 모든 기사를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주제들은 빅데이터의 빈도와 관계도 분석의 결과를 고려하면서도 개별적인 신문 기사의 주요 논점과 구체적인 내용의 맥락을 고려하여 범주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디지털교육에 관한 기사의 양적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디지털교육의 주요 담론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인가?

III. 연구 결과 및 분석

1.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의 급격한 변화

원격교육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교육에 관한 논의들이 급증하였다. 이에 관한 신문기사들은 2020년에 정점을 이루었다. 그림 1을 보면, 디지털 교육에 대한 신문기사의 양의 급격한 변화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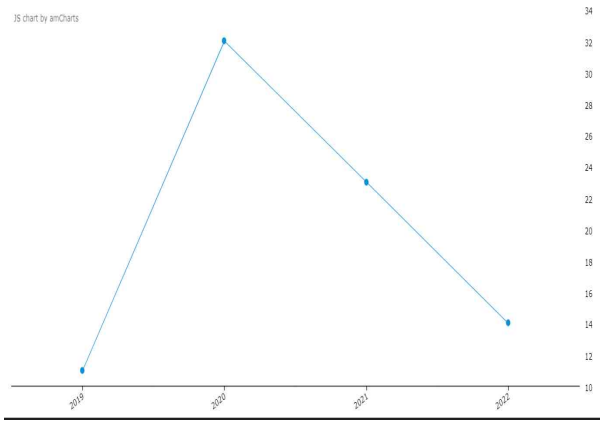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교육에 대한 신문기사의 양의 변화(2019-2022)
Figure 1. The Quantitative changes of the articles relating to digital education in newspapers (2019-2022)

위의 그림은 2019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신문 기사의 양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데이터인데, COVID-19가 시작된 2020년 전후의 변화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 키워드 트렌드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이 2020년에 급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11건이었던 기사가 2020년에는 32건으로, 300%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COVID-19 상황에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기사의 건수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 2021년에 23건, 2022년에 14건이 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과 COVID-19와의 관련성은 신문 기사들 간의 관계도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관계도 분석 또한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기본 설정으로, 가중치 관련 기사 건수는 4건 이상이며, 기본 설정이다. 분석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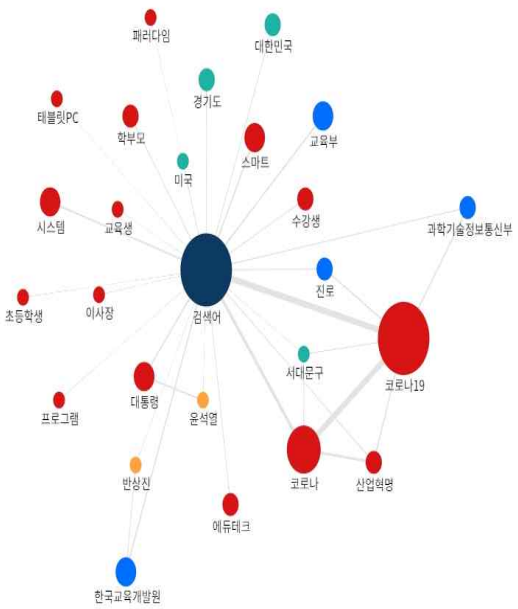

그림 2. 디지털교육에 관한 신문기사의 관계도 분석
Figure 2. The Analysis of Relations of the articles about Digital Education

위의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검색어인 디지털교육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 키워드와 가장 큰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기관이나 인물들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거론되었으며, 주로 디지털교육의 강화를 통해 이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디지털교육에 대한 주요 담론들

1) 미래교육의 핵심으로써 디지털교육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은 주로 그 필요성과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담론은 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논의되었는데,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담론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미래교육의 핵심으로써 디지털교육을 논한 경우가 주로 여기에 해당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 불리는 사회 변화 속에서 디지털교육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의 등장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보편적인 것이 되었기에, 이러한 기기들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학습은 물론 생존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이러한 기기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문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문맹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것이기에, 학습자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학습자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은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는 학습자들의 성취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는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하였다.

2) 디지털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의 필요성

이 담론은 디지털교육 환경을 둘러싼 논의들로, 크게

두 가지 성격의 담론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물리적 환경, 즉 여건 마련과 관련된 담론들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 둘째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킬 것인가에 관한 담론이다. 주로 학습자들이 제대로 된 디지털교육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린 학생들이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산어촌의 학교 및 디지털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거나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이 디지털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내실 있는 디지털 교육을 위해 디지털 시대의 필수언어로써 코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딩 교육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유럽이나 가까운 이웃 나라인 중국의 정보 교육 현황과 비교하면서 한국이 더 많은 정보 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지어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들이 중심이 되었다. 디지털교육에서는 디지털기기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학습자들의 학습 능력을 결정하고, 이것이 장차 교육의 수준이나 교육의 격차를 결정짓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디지털교육 담론에 나타난 특징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을 양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COVID-19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2020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전 시기인 2019년과 비교하였을 때, 펜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급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여 이전 시기와 비슷한 정도가 되었다. 즉 디지털교육 담론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필요했던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환경이나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 같은 기술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후에 나타난 담론의 급격한 감소가 이를 증명한다.

일상생활이 이전의 상황으로 대부분 회복되었고, 교육 또한 대면으로 전면 전환되었기에 현재는 그 필요성이나 관심이 급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관어 분석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볼 수 있다.

그림 3.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관어 분석
Figure 3. The Analysis of Relating Words about Digital Education

위의 그림 3은 빅카인즈에서 제공한 연관어 분석 결과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연관어 분석은 검색된 신문기사 중에서 디지털교육과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 즉 가중치나 빈도수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 19라는 펜데믹 상황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과 주로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의 문제도 주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학생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논의되었다.

학습과 학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은 주로 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비롯된 교육의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문제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가 디지털교육 담론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문제제기이면서도 현재적인 관점의 담론들로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교육에 대한 담론에서 기술 습득이나 기능적 역량 함양에 집중하는 것은 디지털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디지털 역량이 기술 습득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역량에서 기술이나 기능 습득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술 습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담론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인공지능(AI) 교육 같은 새로운 영역들을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Ⅳ. 논의 및 결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었던 펜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사실 한국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담론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모체가 되는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교육 부분에서는 교단선진화 슬로건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강조해 왔다.

더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인재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라는 대통령 보고서에 '스마트교육'까지 보급되었고, 이는 각 교육 현장으로 확산되었다.' 스마트교육(SMART) 교육은 자기주도적인(Self-directed) 동기 유발을 통해(Motivated) 적용 가능한(Adaptive) 다양한 자료(Resource)와 기술(technology)을 활용하고자 한 교육이다. 즉 디지털교육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스마트교육 또한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 함양시키고자 했던 학생들의 능력은 의심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담론들에서는 여전히 기술 부족과 새로운 기술 습득 함양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스마트교육이 시작되던 때처럼 반복되는 담론들로 채워졌다.

물론 모든 교육 영역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계발을 확대하고 촉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보 생성이나 의사소통의 수단이 인터넷과 같은 테크놀러지를 통해 상당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의 변화가 모든 학습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12].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즉 학습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문제라면, 이 기술은 단순한 테크닉의 향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임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즉 디지털교육에서 기술 습득이나 기능적 역량 함양에 집중하는 것은 디지털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디지털 역량이 기술 습득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텐데, 이러한 전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서 어린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기술이나 기능 습득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교육에 대한 현재의 담론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직면하게 되면서 매우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교육에 대한 지금의 담론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현재적인 관점의 담론들로 채워졌다는 한계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교육이 왜 필요하며, 또 어떤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담론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References

[1] Yeon Ha Kwon, Sejin Park, Hyun Sook Yi, "Issu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Gap after the COVID-19 Outbreak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JLCCI)*, Vol. 21, No. 6, pp. 625-644, 2021.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6.625

[2] The Article of the Dong-A Ilbo, 21th July, 2020.

[3]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vailable fromttps://educhannel.edu net.net/info/educhannel.do

[4] Eunsoon Cho, "Untact Classes in Post Covid-19: The Roles and Challenges of Educational Technolog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6, No, 3, pp. 693-713, 2020. DOI: http://dx.doi.org/10.17232/KSET.36.3.693

[5] Hyeji Kil, Anna Shin, "Exploring the Contents of Digital Competency Education-Focusing on Keyword Network Analysis on Educational Programs and Expert Opinion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JKE)*, Vol. 48, No. 2, pp. 47-73, 2021. DOI:http://10.22804/jke.2021.48.2.003

[6] JinAa Bae, Ara Ko, Jungwon Cho, "Direction of Education for Developing Digital Competency:

Analyzing of Digital Competency Enhancement Education Projects", *The Korean Association of Computer Education*, Vol. 25, No. 1, pp. 241-244, 2021.

[7] Shin Soo-bum, "Strategies for Digital Teaching Practicum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Pre-service Teachers", *Teaching Practice Research*, Vol. 3, No. 1, pp. 1-9, 2021. DOI: https://doi.org/10.35733//tpr.2021.3.1.1

[8] Heyoung Kim, "The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of English Education in the Post-COVID-19 Era, *English Teaching*, Vol. 76, pp. 87-105. DOI: https://doi.org/10.15858/engtea.76s1.202109.87

[9] An, Jisook, "Analysis of Image of Nurses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Corona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 66-74, 2021. DOI: https://dx.doi.org/10.17703/JCCT.2021.7.1.66

[10]Available from https://www.bigkinds.or.kr

[11]James, P. S. *Participant Observation* (reissued), Illinoise: Waveland Press, Inc., pp. 140-171, 1980.

[12]Cassie Hague and Sarah Payton, *Digital Literacy Across the Curriculum*, pp. 3-63, 2010. Futurelab, UK: Bristol.